

李濟馬의 『東武遺藁』에 나타난 漢詩 研究

魯 — 善*

A Study on the Chinese Poems in Je-Ma Yi's Dongmuyougo

Rho Ihll-sun

The Chinese poems written by Je-Ma Yi may be categorized into two different facets: one is about a broad spectrum of a man's feelings covering from delight to sorrow; and the other is about self-caution. He has been known to be a warrior having strong self-respect and a man of tough personality reluctant to compromise with others. As a result of analyzing his poems,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he was an ordinary person who got along with his neighborhood, took a pleasure in appreciating natural beauty and wandered around in agonies of pain. The literary features reflected in his self-caution poems are compatible with his own philosophical thought. Through these poems, he revealed his autonomous perception of life, and its ultimate goal was placed on the fulfillment of moral obligation, the highest value that a man should achieve as an individual.

Je-Ma Yi's Chinese poems are in full harmony with the general tendency shown in the area of poetic literature during the late Yi dynasty. As pointed out above, particular qualities are represented in his poems, and thereby, from comparative perspectives with his unique literariness, future research activities should be directed to a well-defined study on other contemporary writers.

抄 錄

지금까지 동무 이제마는 의학자 및 사상가로서의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본 논문

* 충남 공주시 산성동 92-4 대원당 한의원

서는 동무의 이러한 면모 이외에 그가 지은 한시를 분석하여 동무가 문인으로서도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었으며 독자적인 문학세계를 구축하고 있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규명하고자 한다. 문인으로서의 동무의 진면목이 밝혀진다면 이는 동무 연구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필자가 접한 동무의 한시는 모두 20수이다. 동무는 23세부터 35세까지의 청장년기에 한시를 주로 지었으며 44세이후 격치고를 저술하면서부터는 한시를 그다지 많이 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무가 지은 한시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삶과 방랑의 과정에서 겪는 일상사를 형상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과 주변 인물들의 행동거지를 경계하는 자경시이다.

동무가 삶을 노래한 시는 4수 뿐이지만 이 시편들은 모두 압운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으며 시를 지을 당시의 내면심사가 곡진하게 표현되어 있고 수사적 표현도 세련되어 있어서 동무의 한시 문학 세계가 일정한 수준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그리고 그의 자경시는 한시의 정형성을 완전히 지키고 있지는 않은데, 이것은 당시 조선후기의 문단에 팽배해 있던 조선시의 자각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자경시는 그 내용이 동무의 사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동무의 사상이 시의 형태로 표현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다.

동무는 그의 한시를 통해 다정 다감하고 솔직한 인간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동무의 면모는 전혀 새롭게 밝혀지는 것으로서, 저명한 의학자요 유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사려 깊은 사상가로서의 모습 이외에 진정한 인간적 실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 있다고 하겠다.

I. 緒 論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東武 李濟馬(1837~1900)는 위대한 醫學者였고 깊이 있는 思想家였으며, 憂國之士인 동시에 뛰어난 武人이었고, 백성을 사랑했던 牧民官이었다. 이처럼 다양한 면모가 東武의 한 몸에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은 東武가 조선후기의 전형적인 선비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東武는 詩人으로서의 자질도 갖고 있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하여 전혀 연구되지 않은 것으로서 인간 李濟馬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東武는 漢詩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주변을 노래하였으며, 방랑의 고통을 회화적으로 묘사했고, 특히 自警詩를 많이 지음으로써 의학과 사상가로서의 면모와는 사뭇 다른 인간적 모습을 보여 東武의 眞面目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본 논문은 東武 李濟馬 研究의 일환으로 그가 지었던 漢詩를 면밀히 고찰함으로써 東武의 문학적 역량을 검증하고, 그가 추구했던 사상이 漢詩에서 발현되는 양상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시도가 제대로 진행되어 기대하는 결론이 추출된다면, 이는 東武 研究의 지평을 확대하는 작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東武 李濟馬를 私淑하여 그의 학문과 의학사상을 흠모해 왔었다. 그러던 중 『東武遺藁』에 그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구하여 연구한 결과 전혀 연구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마침 적을 두고 있던 공주대학교 대학원(고전문학전공)의 석사 논문의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더욱 보완하고 정리하여 논문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 이 발표요지는 필자의 석사논문을 요약하여 제출한 것이다.

II. 東武의 漢詩 世界

조선시대의 선비에게 있어서 作詩行爲는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었다. 선비들은 각자의 心思와 萬端情懷를 漢詩로 표현하는 것은 물론 친구간의 우정을 나눌 때나 이별할 때를 비롯하여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詩와 함께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와 친숙하게 지냈다. 물론 작품의 寡多에는 차이가 있으나 그들이 시를 애호하였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젊은 시절부터 武術을 좋아하였으며 평생을 醫術家요, 思想家로 살았던 東武에게도 몇 수의 한시가 전한다는 것은 그의 삶을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어찌 보면 건조하고 도식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東武의 정신세계는 한시의 존재로 인해 더욱 인간적인 면모를 감지할 수 있게 한다.

東武의 한시는 『東武遺藁』¹⁾의 末尾에 수록되어 있다. 『東武遺藁』는 東武의 다양한 문장이 일괄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중요한 저술이다. 다행스럽게 최근에 이 서적을 국역한 업적이 나왔는데²⁾ 이는 東武學의 새로운 발전계기를 만들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저술은 전통적인 遺稿의 편찬 방식대로 시대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東武가 처음 시를 지은 때는 23세였으며 마지막 작품은 35세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로 볼 때 젊은 시절에 詩作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武科登第 이후에는 한시를 많이 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고찰하는 동무의 한시는 『東武遺藁』에 수록되어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밝혀둔다.³⁾

1. 東武 漢詩의 概觀

東武 漢詩의 작품 수나 작품의 문학적 수준을 사실적으로 파악해 볼 때 그가 문학사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정도로 비중있는 작가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학사상적 측면과 의술가로서의 측면에서만 파악되었던 東武의 모습이 이제 새롭게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東武 漢詩의 존재로 인해 마련된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文·史·哲을 겸비한 전인간적 면모를 갖고 있는 선비로서의 東武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東武의 漢詩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삶과 방랑의 과정에서 겪는 많은 느낌과 생각을 형상화한 것이고, 또 하나는 詩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행동거지를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 세계이다.

東武가 지은 한시 20수를 概觀해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
- 1) 본고에서 텍스트로 사용한 『東武遺藁』는 현재 韓國精神文化研究院의 靑城文庫에 收藏되어 있는 筆寫唯一本이다.
 - 2) 이창일 역주, 李濟馬 지음 : 東武遺藁, 서울, 청계출판사, 1999.
 - 3) 필자는 최근에 연변 조선 민족 의약 연구회에서 1984년에 영인본으로 발간한 『동의수세보원 사상초본권』에 동무가 노년에 지은 「戒病人詩」라는 작품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아직 작품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다만 「戒病人詩」는 제목으로 보아 동무의 自警詩와 같은 계열의 작품인 것으로 추정된다.

순번	제목	형식	제작연대	비고
1	己未三月念後元谷柯峙舍吟	七言詩	己未(23세)	1首
2	六月既望連日陰雨以詩相和	七言詩	己未(23세)	1首
3	自警	五言詩	己未(23세)	4首
4	癸亥夏雨遊鷓鴣與巨昌金生同乞題兩乞	七言詩	癸亥(27세)	1首
5	己巳春寓居屯地自警東壁	七言詩	己巳(33세)	4首
6	自警西壁	七言詩	己巳(33세)	4首
7	又自警兼呈栗洞	七言詩	己巳(33세)	2首
8	又自警	七言詩	己巳(33세)	2首
9	辛未季夏舍于沙村以生長老人世間爲題相和	七言詩	辛未(35세)	1首

2. 삶과 放浪의 抒情

詩가 소중한 이유는 삶의 모든 과정에서 느끼는 萬端情懷를 곡진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詩人은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나 자연현상을 보고 내면의 정서가 발동하게 되며, 이것이 일정한 운율을 갖춘 형태를 취하여 글로 표현되었을 때 詩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詩를 창작하는 행위는 예나 지금이나 관계없이 지식인들의 지극히 보편적인 정서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東武도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감정의 흔들림을 詩로 표현해 놓았다. 어떤 때는 혼자 대자연을 玩賞하는 즐거움을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때는 의례적인 관계에서 詩를 짓기도 했으며 끝없는 방랑의 고뇌와 행적을 詩로 노래한 예도 있다.

1) 「柯峙舍吟」

東武가 지은 첫 번째의 한시는 '기미년 3월 20일 후 원곡의 가치고개의 집에서 읊다(「己未三月念後

元谷柯峙舍吟)」이다. 먼저 작품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柯峙舍吟」 山舍春暖盃亭亭	「가치고개의 집에서 읊음」 산은 봄날의 따스함을 머금고 술잔은 외로운데 온갖 봉우리에 꽃은 지고 풀은 더욱 푸르르다. 유연히 흥취가 일어났다 유연히 사라지니 ...任斜陽醉復醒
花落千峰草又青 悠然乘興悠然去	오로지 석양에 맡겨 취했다 다 시 깨도다.

東武가 이 시를 지은 것은 23세 때이다. 이 나이에 이처럼 제대로 체계를 갖춘 작품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은 東武가 어렸을 때부터 漢詩를 짓는 법을 배웠으며 계속해서 한시를 가까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작품이 전하지 않을 뿐이지 다량의 습작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東武는 이 시절에 沿海州 일대를 포함하여 전국을 두루 周遊하였으며 이 해에 長男 龍海가 출생하였다.

이 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庶孽 출신이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인한 고뇌, 세상과 자아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갈등 등은 찾아볼 수 없고 대자연 속에서 悠悠自適하는 詩的 自我의 한가함이 잘 나타나 있다. 표면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극심한 葛藤에 빠져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東武에게서 이렇게 유연한 기풍의 시를 발견한다는 것은 뜻밖의 일이다.

이 詩가 지어진 시점은 늦은 봄날 저녁 무렵이었다. 어딘지 자세하지는 않지만 깊은 산골짜기에도 봄은 점점 그 빛을 더해가고 있었다. 시적 자아는 꽃이 지고 있는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외로이 술잔을

들고 있었다. 봄빛을 감상하며 마시는 술에 취기가 더해지며 그 취기에 따라 興이 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시적 자아는 그 酒興을 빙자하여 격정에 빠지지는 않는다. 다만 그 興이 천천히 잦아드는 것을 느끼기만 할뿐이다. 그리고는 다만 석양빛에 물들어 마시고 취하고 깰 뿐인 것이다.

젊은 나이에 이처럼 자연의 이치에 크게 거슬림이 없으며 나아가 자연현상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 이 述懷를 보고 있노라면 東武가 뒤에 하나의 완성된 체계를 갖춘 思想家가 될 수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이 작품은 東武의 첫 작품으로서 그의 文人的 風度を 잘 나타내고 있는 詩라고 할 수 있다.

2) 「陰雨詩」

原題는 '유월 열 옛새에 계속 장마비가 내리는데 詩로써 서로 주고받다. (『六月既望連日陰雨以詩相和』)'이다. 東武와 같이 시를 주고받던 인물이 누구였는지는 자세하지 않지만 내용을 볼 때 東武보다 연상이었거나 官吏였을 가능성이 크다.

「陰雨詩」

烟雨霏霏洞裡天
禾麻菽麥滿前前
國泰時農衣食足
生長聖代老年年

「장마비」

안개비 하염없이 골짜기에 가득하고
벼와 삼, 콩과 보리 앞뜰에 가득하다
태평 시절에 의식도 풍족하니
성대에 나고 자라 이대로 늙어가네

장마비가 내리는 동안 詩의 自我는 누군가와 더불어 談笑하며 시를 주고받았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개인적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관

념적인 太平聖代를 노래하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주지하다시피 東武가 활동하던 舊韓末은 민생의 피폐가 극도에 달했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가하게 國泰民安과 順風雨調를 읊으며 그 사이에서 걱정없이 늙어가는 노년의 삶을 표현한 것이 아무래도 東武의 다른 작품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이 시는 다른 사람이 지은 시의 운을 次韻하여 지으면서 그 意境도 유사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이러한 작품이 나오게 된 것 같다.

이 詩의 특징으로 6월 16일이라는 날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시기는 한여름이어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장마가 겹치기 쉬운 계절이어서 詩의 사실성을 더해준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아도 東武의 다른 작품과는 현격하게 다르다. 東武는 사회제도의 모순을 타파하는데 열성적인 사람이었으며, 당시의 실정에 비추어보아 대단히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한 인물이 이처럼 지극히 도식적인 詩를 썼다는 점은 아무래도 이 시를 지을 때의 정황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兩乞詩」

정처없는 방랑길에서 어느 날 시적 자아는 鷄龍山 근처를 지나게 되었던 모양이다. 마침 巨擘出身의 또 다른 방랑자 金生을 만나 마음이 결합되어 같이 걸식과 방랑을 계속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의 감회를 읊은 시가 '癸亥年 여름에 남쪽 鷄龍山을 유람하다가 巨擘 출신 金生과 같이 걸식하며 둘이 걸식함을 제목으로 삼는다(『癸亥夏南遊鷄龍山與巨擘金生同乞題兩乞』)'이다.

「兩乞詩」

乞法好宜作兩人

「양걸시」

구걸하는 법 두 사람이 함께 함

이 가장 좋겠지만
 逢場莫道面情新 구걸하는 곳에서 서로를 아는체
 하지 말라
 若富復憐他乞者 만약 부자가 다른 거지를 불쌍
 히 여긴다면
 不妨吾乞慰諸貧 우리 대신에 다른 거렁뱅이가
 덕을 보겠지

이 시의 起句와 承句에는 門前乞食의 구체적인 장
 면과 그 방법을 戲謔의으로 묘사하고 있어 諧謔의
 修辭的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의 웃음은
 웃음을 위한 웃음이 아니라 연민의 감정을 동반하는
 웃음이므로 詩 전체에 페이스스의 분위기가 물씬하
 다. 그렇지만 轉句와 結句에서는 앞의 상황을 이어
 받으면서도 끝내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詩的 自
 我的 내면세계를 엿볼 수 있어 매우 인상적이다. 비
 록 세련된 이미지의 형상화나 수사적 기교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방랑의 모습이 역동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방랑의 와중에서도 자신의 본모습을 잃지 않고
 있는 시적자아의 형상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게 된
 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이야말로 東武漢詩
 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沙村相和」

이 시는 東武의 작품 중 가장 늦게 지어진 것이
 다. 原題는 '辛未年 늦여름 沙村에 집을 짓고 그 곳
 에 사는 노인들과 세상일을 글제 삼아 서로 주고받
 는다('辛未季夏舍于沙村以生長老人世間爲題相和,)'이
 다. 이 해 東武의 나이 35세였다. 東武는 沙村에 집
 을 장만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곳의 노인들과 세상
 사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시를 지은 것으로 보
 인다. 이 시는 東武의 작품 중 유일한 七言律詩이
 다. 보통 漢詩學에서 七言律詩는 정형시의 체계를

가장 잘 구비하고 있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七言律詩를 지을 줄 안다는 것은 漢詩의 작법을 모
 두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沙村相和」	「사촌에서 서로 읊음」
好行其樂惡行憂	선행은 즐겁고 악행은 근심스러 운 것
憂樂中間眞的遊	근심과 즐거움 사이에 진정한 놀이가 있도다
樂以逐溪臨澗石	즐거운 마음은 시냇가를 따라 골짜기를 찾음이요
憂如登海棹孤舟	망망대해에 조각배를 오르는 것 이네
諸君能力當同涉	그대들 힘있으니 마땅히 같이 건널 수 있을 것이고
鄉黨回天亦或流	온 고을이 어쩔 수 없이 또한 흐를 수도 있으리
最喜恭勤携餘酒	가장 기쁜 일은 공손히 남은 술 잔을 드는 것이요
多怕放浪日登樓	두려운 건 방랑자 되어 날마다 누대에 오름이라

삼십대 중반에 들어선 東武는 이제 沙村에 거처를
 정하고 나서는 13세부터 시작된 긴 방랑의 끝자락
 을 접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해인 36세에 차남
 龍水가 태어난 것도 이러한 정착의 결과인 셈이다.
 그리고 3년 후 39세에 武科에 登科함으로써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으니 東武의 沙村 定着은 그의 인생에
 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는 풍부한 경험으로 인해 삶의 질곡에서
 벗어나 원숙한 안목을 갖게 된 사람으로서의 면모가
 유감없이 드러나 있다. 흠이 즐겁고 뉘이 근심스러
운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善惡의 사이에 진

정한 인간의 삶이 존재한다는 述懷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詩的 自我는 이제 작은 시냇가의 바위를 찾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었으며 바다 위의 항해는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었다. 頸聯에 나타나는 동네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접촉도 시적 자아의 새로운 면모로 보여진다. 마지막 聯에는 더 이상 방랑을 추구하지 않는, 지극히 공손한 자세로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여 충실히 살고자 하는 의지가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작품은 七言律詩의 定型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며 東武의 心思와 內的 追求가 조화를 이루어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의 「兩乞詩」와 함께 東武漢詩의 대표작으로 인정할 수 있겠다.

3. 自警詩의 世界

東武의 漢詩가 갖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 自警詩이다. 東武는 20首 중에서 16수의 自警詩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에 속하는 작품은 대부분 올바른 삶을 위한 警戒의 내용을 담고 있다. 東武는 유학적 교훈에 충실한 사람으로 그의 四象哲學이나 四象醫學은 유학경전의 독자적 해석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해 두고 東武의 自警詩를 살펴보면 이들이 모두 하나의 유기적 구조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自警」

이 시는 맨 처음 지어진 自警詩로 4首이다. 먼저 작품을 소개해 본다.

「自警」 丈夫貴靜定	「 스스로 경계함」 대장부는 고요히 정함을 귀하게 여기니
---------------	------------------------------------

身立方知物 常聞諸格語 來事須來口	몸이 세워지면 사물을 알 수 있는 법 항상 여러 격언을 들어야 하리라 내일 일은 모름지기 내일의 것이 리니
-------------------------	---

詳看來到事 不可則便休 無更再三復 翻成千百憂	다가오는 일 자세히 살펴보아 할 수 없거든 그대로 두어라 쓸데없이 두세 번 반복해 천만가지 근심이 되지 않도록
----------------------------------	--

遊神雲漢上 習步月灘中 若從埋沒去 徒勞亦無功	정신은 구름 위를 날아 노닐고 달빛 아래 물가에서 걸음을 익히도다 한번 자취없이 사라져 버린다면 헛되어 힘만 들고 아무 공이 없으리
----------------------------------	--

浮海便浮海 上山便上山 必欲有心處 其人丕暫閑	바다를 아무리 떠돌아 다니더라도 산을 아무리 오르내려도 하고자 하는 욕심에 매어 있다면 그 사람은 잠시도 한가하지 않으리라
----------------------------------	---

이 시에서 東武가 스스로를 경계하는 조목이 4首의 시에 나누어져 있다. 첫 首에서 東武는 고요히 눌러 앉아 자신의 내면세계를 완성하고자 노력하는 전통적인 유학자의 면모를 보인다. 항상 聖賢들의 충고와 격언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늘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둘째 首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고 있다. 세 번째 작품에서는 진정한 修養의 방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東

武의 방법은 日用行事に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적인 儒學의 道인 것이지 구름 위를 날고 달빛 속을 걸어가는 허망한 術法이 아닌 것이다. 마지막으로 東武는 자신에게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도록 다짐하고 있다. 욕심은 언제나 인간을 변뇌하게 할 뿐 잠시의 한가함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2) 「東壁自警詩」

이 시는 東武가 33세 되던 해 지은 것이다. 앞의 自警詩를 지은 뒤 10여 년 뒤의 일이다. 原題는 '己巳年 봄에 살고 있는 집 동쪽 벽에 쓴 자경시(「己巳春寓居屯地自警東壁」)'이다. 제목 그대로 자신이 거처하는 곳의 동쪽 벽에 4首의 七言詩를 써 붙여 놓은 것이다.

「東壁自警詩」	「동벽자경시」
一物自有一物用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쓰임이 있고
終看別物又別般	사물은 제각기 쓰임이 있는 법인데
屯地主人昧端緒	둔지의 주인 이 이치를 몰라
與物不平益怨物	사물과 불평하여 더욱 세상을 원망하도다
彼物自是這邊物	저 물건은 본래 이 쪽의 물건인데
君心胡爲那邊措	그대 마음에 어찌해서 저 쪽에다 두었나
以那這措是差處	저 쪽 이 쪽에 두는 것이 차이가 있으니
願將君心莫怨物	원컨대 그대 마음에 물건을 원망하지 마라
彼物相群天地間	저 물건들도 천지간에 서로 모

여서	그대와 함께 흘러가니 그대 원망하지 말라
與君同流君莫怨	저 물건이 장차 그대를 어지럽힐 것이니
彼物將欲惱擾君	원컨대 그대는 먼저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
願君先劃犄角計	편안하고 즐거운 것도 진실로 때가 있고
安平泰樂固其時	힘들고 어려운 일도 또한 때가 있는 것
困窮否難亦其時	이내 몸도 만물 중에서 생겨났으니
我身忽生萬物中	물건과 더불어 조화하면 이것이 곧 봄날일세
與物得平是得春	

첫首를 보면 30대를 지나는 東武의 성숙한 생각이 잘 나타나 있다. 결국 물건은 물건이고 그것에 접하여 사는 사람은 사람인 것이다. 모든 물건은 각각의 쓰임새가 있는 것이므로 사람들이 물건에 대해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詩도 이러한 意境을 이어서 물건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세 번째 首에는 이 물건으로 인해 야기되는 인간의 욕심과 고뇌를 경계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충고한다. 그리고 마지막 首에서는 세상의 이치를 어느 정도 통달한 것으로 보이는 東武의 깊은 述懷가 나타난다. 인간 세상의 모든 일, 안락하고 즐거운 일이나 괴롭고 힘든 일들이 모두 각각의 때가 있을 뿐인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주변의 사물과 연계되어 살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사물들과 더불어 지내면서 평정을 잃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사물로 인해 마음 흔들

리지 않는 것이 곧 최상의 삶이라고 東武는 역설하고 있다.

3) 「西壁自警詩」

동쪽 벽에 自警詩 4首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다하지 못한 말을 다시 써서 서쪽 벽에 붙인 것이 이 작품이다. 이 4首의 詩에서는 현실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마음가짐에 대한 경계의 말로 되어 있다.

「西壁自警詩」	「서벽자경시」
欲學度量學機深	도량을 배우려거든 심기를 깊게 함을 배워야 하리
機深合天能無妄	심기가 깊어 하늘에 합당하면 망령됨이 없으리라
今君機淺口舌忙	이제 그대 심기는 얇고 혀만 바쁘다면
妻子輕君不肯服	처자식마저도 그대를 가벼이 여겨 복종하지 않으리라
欲學技藝學膽定	기예를 배우려거든 담력을 안정시키는 것을 배워야 하리
膽定心手方作用	담력이 안정되어야 마음과 손을 부릴 수 있는 법
今君膽弱心手劫	이제 그대 담력은 약하고 마음과 손이 겁먹는다면
細者不辨況大者	작은 것도 분별치 못하거늘 하물며 큰 것이라
外振忠信人亦振	겉으로 忠信한 척하면 다른 사람 또한 그럴 것이요
望之不似最可羞	바라봄에 그것이 아니라는 말 가장 부끄러워라

願君心如金石堅	원컨대 그대 마음을 금석처럼 굳세게 하라
片牢固人莫動	일편단심 굳세게 지키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리
內飭權詐人亦飭	안으로 권세와 거짓을 경계하면 다른 이도 그러할 것
狂妄顛錯更可憂	망령되어 뒤집어지고 섞이는 것 더욱 근심스럽도다
願君心如滄浪靜	원컨대 그대 마음을 청량수처럼 고요하게 가지라
兩涯汪洋人莫測	끝없이 아득하여 사람들이 잴 수 없도록

東武는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전형적인 유학자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공허한 이론에 빠지거나 관념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 詩의 제 1首와 제 2首에서도 度量과 技藝를 동시에 배우도록 권하고 있다. 특히 技藝, 즉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채롭다. 그러면서도 어느 것에든 誠心을 다해 배워서 一家를 이루도록 勸勉하고 있다. 다시 제 3首와 제 4首에 이르러서는 마음가짐의 방법에 대하여 말한다. 모름지기 충성스럽고 信義있는 것이 사람 마음의 본질임을 東武는 또다시 강조한다. 이때 東武는 孟子的 말씀을 인용하여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을 말하는데 그것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孟子가 梁襄王을 처음 보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바라봄에 임금같이 않도다. 그 앞에 나아갔으나 두려운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⁴⁾ 東武는 이처럼 忠信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없고 그것이 가장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리고 東武는 마음을 金石처럼 굳세게 간직하여 다른 사람이 흔들지 못하도록 하며 또 한편으로 마음을 바다처럼 고요하게 가다듬어 다른 사람이 선불리 측량하지 못하도록 경계한다. 여기에서 자신의 세계를 완성하고자 노력하는 東武의 의지와 한없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된다.

4) 「栗洞自警詩」

이 시의 原題는 '또 자경시 2首를 지어 겸하여 栗洞에 보낸다(「又自警二首兼呈栗洞」)'이다. 東壁과 西壁에 自警詩를 4首씩 써놓고도 東武에게는 또다른 생각이 솟아난 모양이다.

「栗洞自警」

「울동자경시」

丈夫患用謀財利	장부의 근심은 財利를 도모하는 일
念念轉到誘人地	생각마다 사람들을 달래는 것일세
若能通工皆美食	만약 통상에 능통하여 모두다 호의호식한다면
鄙賤事役猶可爲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할 수 있겠네
丈夫貴驕恥鄙賤	장부는 교만을 귀히 여기고 비천함을 부끄러워 하지만
丈夫怠惰不通工	장부가 게을러 통상에 능통하지 못하여
廚下無糲妻子餒	부엌에 쌀이 없어 처자식이 주린다면
自然心頭利人財	자연히 마음속에 재물을 구할 것일세

위의 詩에서는 천하의 복지를 위해서 천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東武의 굳센 의지가 두드러진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에게 있어서 財利를 도모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의 하나였다. 그러나 東武의 생각은 전혀 그들과 달랐다. 먼저 通商과 工業에 힘을 기울여 그를 바탕으로 물질적 풍요를 이루어 세상사람들을 풍족하게 살 수 있게 한다면 사실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다. 젊은 나이에 이러한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東武를 보면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그의 삶이 더욱 선명하게 부각된다. 東武의 이러한 생각이 그의 愛民心이나 四象醫學을 바탕으로 한 大衆施術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東武의 自警詩는 그의 철학과 사상을 詩라는 문학형태를 빌려서 표현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5) 「又自警」

그래도 할 말이 남은 東武는 마지막으로 2首의 自警詩를 덧붙여 놓음으로써 결말을 짓는다.

「又自警」

「우자경」

弟兄妻孥自各物	형제와 처자식도 제각각 사람이요
智愚賢拙亦各才	지능과 뚱뚱도 또한 각각의 재주로세
友悌和慈自各道	우애와 공손함, 화목과 자애도 각각 도리가 있고
曲盡之妙亦各方	곡진한 묘함도 또한 각각 도리가 있네

4) 『孟子』, 「梁惠王 上」

孟子見梁襄王 出語人曰 望之不似人君 就之而不見所畏焉

眞辨任物眞知行 참으로 분별하여 사물에 맡기면
 참된 지식을 행함이요
 妄辨任物妄知行 망령되이 분별하여 사물에 맡기
 면 망령된 지식을 행함이라
 眞辨天下任天下 참으로 천하를 분별하면 천하도
 맡을 수 있지만
 妄辨室中誤室中 집안 일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저도 그릇 되느니라

받지 못하고 살았음이 분명하다. 그러한 경우 대부분 세상에 도전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예사이지만 東武는 그러한 좌절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구제할만한 의술과 철학을 갖추었던 것이다. 이러한 東武의 立志傳의인 일생이 그의 自警詩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III. 結論 및 東武漢詩의 特徵

위의 詩에서 東武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한 개별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부모형제와 처자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각각 하나의 사물로서 존재한다는 인식은 상당히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생각이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稟賦받아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슬기로운과 어리석음, 현명함과 졸렬함은 각각의 운명인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각각의 道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일에는 각각의 옳고한 존재방식이 있는 것이라고 東武는 말한다. 마지막으로 東武는 참된 분별력을 강조한다. 분별의 주체는 어느 경우이든 자기 자신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아 온 自警詩의 결론이 있다면 바로 이 생각이다. 이러한 참된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 끝없이 자기자신을 연마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학업에 충실해야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갖추면 천하의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면 방안에서의 일조차 어그러지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東武의 생각이다. 진정한 분별력이라 함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완벽한 인식을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자신과 주변의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분별력의 시작인 것이다.

東武는 신분상의 결점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접을

東武의 漢詩世界를 정확히 분석하여 그 특징을 가려냄으로써 東武의 새로운 면모를 파악하는 것이 본 논문의 중심 과제이다. 20首에 불과하지만 東武의 한시는 독자적인 문학세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東武를 文人으로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東武는 漢詩를 통해 자신의 삶과 주변을 노래하였으며 고난의 방랑에 대해서도 묘사하였다. 그리고 이웃들과 세상사는 이야기를 하며 주고받은 작풍도 있으며 스스로를 경계하는 내용을 담은 詩도 多數 있다.

東武가 한시를 집중적으로 창작한 기간은 20대에서 30대 중반에 걸치는 10여 년간이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감정이 풍부하고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東武는 한시를 지었던 것이다. 그리고 전문 의학서를 저술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한시를 그다지 많이 짓지 않았다. 따라서 東武의 한시는 東武의 일생 전체를 통한 사상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東武의 漢詩가 갖는 또 다른 특징은 自警詩가 많다는 점이다. 東武는 이 自警詩에서 자기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한편으로 지향해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하여 다각도로 묘사해 놓았다. 東武 이전의 작가들 중에서도 自警詩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東武처럼 16首에 이르는 많은 작품과 그에 걸맞는 심도있는 내

용을 섭렵하고 있는 예는 그다지 찾아볼 수 없다. 『東醫壽世保元』이나 『格致彙』에 나타나 있는 東武의 사상이나 철학은 유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東武가 독자적으로 정립한 것인데 그 중에서 도덕적 교훈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것의 萌芽를 自警詩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東武의 自警詩는 그의 사상과 철학을 드러내는 또 다른 형태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東武의 漢詩 중에서 삶을 노래한 4首의 작품은 押韻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正格作品인 반면에 自警詩에서는 押韻을 무시하고 있는 작품들이 몇首 있어서 주목된다. 이것은 東武가 作詩의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한 편으로는 自警詩의 경우 전형적인 율격에 구속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파격의 작품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선후기 文壇에 팽배해 있던 '朝鮮詩의 自覺'⁵⁾의 경향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東武와 문학적으로 교류했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은 없다. 그리고 東武의 漢詩世界는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경지를 이룩하고 있다. 그만큼 독창적인 예술과 사상을 수립했던 東武였기에 그의 漢詩도 東武만의 독특한 세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參 考 文 獻

1. 閔丙秀 : 韓國漢詩史, 서울, 太學社, 1996.
2. 李丙疇 外 : 韓國漢文學史, 서울, 半島出版社, 1994.
3. 이창일 역주, 李濟馬 지음 : 東武遺藁, 서울, 청계출판사, 1999.

5) 閔丙秀, 『韓國漢詩史』, 太學社, 1996, pp. 359~361.